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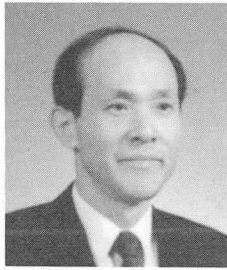
## 돼지가격 하락세 지속 전망

### 1. 머리말

추석전의 돈가 상승과 그로 인한 당국의 수입의지에 견제 역할을 하느라 일선농장에 현장시찰을 다니고, 출하독려를 하고, 5字 붙은 날의 시세에 신경을 곤두세웠던 농립수산부 이하 관계관들이 한숨을 돌릴

기회도 없이 이제는 돈육의 소비홍보와 생산조절을 권장해야 할 처지에 이르고 있으니,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여차하여 수입을 단행치 않도록 힘을 써준 양축가들의 현명함을 높이 평가해야겠다. 양축가 당사자들을 위한 일기기에 협조가 잘 되었다고 생각된다. 내가 안해도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였다면, 그래서 수입이 단행되었다면 후회한들 무엇하며, 정부 당국에 욕한들 그게 대수겠는가?

올해 냉해로 인한 추곡 수매에 대한 것과 보상책 등으로 부심하겠거니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불가항력이라 치고, 앞으로도 금년 추석 전과 같은 또는 그 반대 현상이 출현될 때는 양돈산업이 공동 운명체임을 망각치 말고, 자조·협동 정신을 발휘해야 하겠다. 이런 일은 모르고 안하는 것이 아니요, 알면서도 우선 당장의 피해를 생각하게 마련이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를 범하지 말자.

### 2. 내림세는 시작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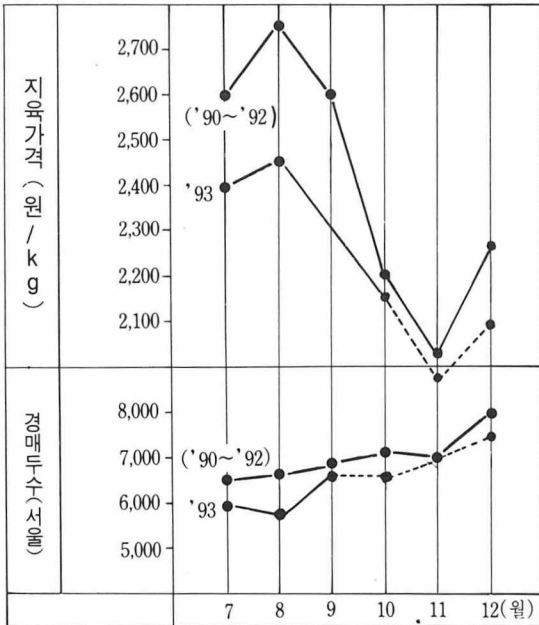
예상한 대로 내림세는 10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하순인 요즈음 2,000원선을 유지했던 것이 언제인가 할 지경으로 파죽지세로 내리막길을

..... 걷고있다. 아마 독자들이 본지를 읽을 때는 보다 더 처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겠는가 분석된다.

..... 전국양돈인대회 준비로 바쁜 나날의 연속이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양돈인들이 모여서 열기를 올려 볼 것인가? 저마다 바쁜 일손이며, 바쁜 농번기인 것이다. 내가 하나 빠져도 모여서 대회를 치루고 양돈인의 위상을 과시해 준다면 나는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양돈인 대회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 대회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아직도 풀지 못한 우리의 숙원들을 힘차게 외쳐 보고 관련 인사들에게 무엇인가 우리의 저력을 과시하는 전시장이 참가비 몇 푼에 좌우되는 정도라면 차라리 잠잠히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직감하기에 멍석을 퍼놓으면 힘차게 씨름을 해주고, 구경꾼도 많아져야 될 것이다. 시세얘기는 안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느냐고? 아니다. 이런 것이 양돈산

〈표 1〉최근('90~'92년) 월별 동향 및 '93 예상치



\* 두수는 서울 3개 시장 하루 물량임. 점선은 예상치

업과 연관된 일이다. 돼지 두수통계는 600만두로 집계되고(본지 가축통계 참조 요망) 9월 사료 생산량도 38만 7천톤으로서 전월35만 4천톤에 비하여 9%나 증가되었다. 국민 경기가 나쁘니 소비도 둔화되고 대일 수출도 일본시장의 가격 저조로 인하여 활발치 못한 상태이다. 지난 호에 전망도표를 제시한 바 있지만, 다시금 시세전망도표를 제시한다(표1참조).

### 3. 소비자를 의식하자

지난해 조사해 본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를 본지 5월호에 게재한 바 있거니와, 과거 보릿고개 시절에는 물량 많은 것이 최고였지만, 최근에는 건강식품 위주를 택하게 되므로 위생적인 고기 생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임은 양축가들이 다 알고 있는 바이다. 이제까지는 수출돈에만 신경을 써서 TLC검사에 합격되는 것을 고려했었으나, 이제 소비자단체들이 보다 더 열심히 위생체

〈표 2〉돼지고기 구입동기

(단위: 가구, %)

구 분	빈도수	백분비
1)가족의 건강과 영양을 생각해서	1,226	74.4
2)제사,생일,혼례등 가족행사를 위해서	62	3.8
3)소풍이나 야외놀이를 위해서	16	1.0
4)손님접대를 위해서	148	9.0
5)가격이 싸서	5	0.3
6)기 타	134	8.1
7)무응답	57	3.5
계	1,648	100.0

크를 해결 것으로 보인다.

쌀농사에 농약을 안쓰고 재배한다, 유기농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도회지의 아파트와 계약하여 도시인들이 수시로 시골 구경겸 내려가서 체크하고 메뚜기도 잡는단다. 쌀수입 개방을 막는 대신 축산물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거니와 어차피 국제화 개방사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의 산업을 지키고 국산품 애호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먼저 물건을 잘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은 몸에 좋다면 굶병이도 뱀도 씨를 말린다.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돼지고기를 구입한다는 것이 74.4%로 가장 높다(표2 참조).

건강상 좋으면서도 기호성에 맞는 것은 더할 나위없이 좋은 것이므로 이런 것을 만들자면 옛날 구정물 돼지식으로, 닭으로 말하자면 터밭의 씨암탉으로 키워야 되겠지만, 대단위 농장을 운용하다 보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들 누가 그만큼 알아 줄 것인가? 하지만 최소한 비육돈 사료를 줄 시기에 육돈 사료를 급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항생제 문제가 야기된다면 양돈업계는 또다시 곤욕을 치뤄야 하며, 그로 인한 후유증은 양축농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연말까지는 돈가 회복이 기대될 수 없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인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량이 폭증되었고(통계 및 사료생산량 참조) 시기적으로 하락되는 계절이라고 잘라서 말할 수 있겠다. **■**